

흑성병에 냉해 겹쳐 울주배 수확량 급감...수출 '비상'

올해 이상기온과 흑성병 등으로 울주배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전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배 수출 물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미국 등에 수출한 물량이 2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배 수출량인 473톤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출 목표치인 600톤에 비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냉해 피해와 흑성병으로 물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2년(344톤), 2013년(240톤)과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473톤의 배과수를 수출했다.

현재까지 전체 재배농가인 116농가 가운데 절반 정동니 62농가가 울주군 율리사업소에 배를 납품했다.

그러나 당초 목표치인 600톤을 충족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난해 수출물량을 맞추기에도 버겁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재배농가의 95%가 지난달 말 이미 수확을 끝냈지만, 올해는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울주지역 배 재배농가가 절반에 가까워 추가 납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는 배꽃 개화시였던 지난 4월에 잦은 비와 이상저온 현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배농가들이 속출했다.

울산 전체 재배농가 1100농가 중 피해농가는 589농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면적도 225ha(전체 재배면적의 약 30%)다.

여기에 흑성병(검은별 무늬병)까지 창궐한 탓에 올해 수확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만 7000톤이었던 것이 30% 감소해 1만 2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 주산지인 서생지역의 배 과수피해가 30% 정도로 조사됐다.

흑성병은 곰팡이 병원균에 의해 배 과실과 잎, 줄기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는 배의 전염병으로 주로 빗물에 의해 전염된다고 알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지역의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데다, 잇따가온 현상과 흑성병이 겹치면서 더욱 수확이 어려워졌다. 폐과수원의 배나무를 벌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

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울산 배를 미국과 뉴질랜드, 대만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출처: news1뉴스 (2015-10-15)